

프리시전바이오, 동물용 임상화학 글로벌 계약에 이어 국내 첫 '수주'

- ▶ 국내 시장에 5년 간 187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지난 3월에도 유럽수출 성사
- ▶ 인체용 임상화학 진단 제품의 판매 협의 진행...임상화학 진단 시장에서 입지 강화

[2021-05-17] 프리시전바이오가 동물용 임상화학으로 최근 두 달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전바이오(주)(335810,대표이사 김한신)는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099190, 대표이사 차근식, 남학현) 및 동물용 진단장비 전문 유통 업체인 바이오벳 주식회사(대표이사 엄창국)과 동물용 임상화학 검사기 (제품명 Exdia PT10V) 및 카트리지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급계약은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총 187억 원 규모로 이는 2020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214.9%에 해당한다.

프리시전바이오의 동물용 임상화학 공급계약은 지난 3월 글로벌 대형 거래처와 21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회사는 임상화학 진출 첫 해 반기만에 약 397억 원 규모의 확정된 물량을 확보하며 신규사업의 조기 안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제로 프리시전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신사업으로 임상화학 진단 분야 진출을 준비해왔으며 이에 맞춰 지난해 말 사람용 임상화학 검사기를 출시했다. 또한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구축한 제조시설이 이번 달 완공돼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동물용 검사기와 카트리지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프리시전바이오 김한신 대표는 "지난 3월 스킵사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 동물용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국내 인체용 임상화학 시장의 공급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동물용 진단 제품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인체용 임상화학 진단 제품의 판매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어 임상화학 진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시전바이오는 코로나 이후에도 신규 임상화학 관련 진단 장비 출시, 플랫폼 확장, 진단 항목 개발 등 전반적인 사업 확장 및 다각화에 집중하며 글로벌 POCT(현장진단)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상화학(Clinical Chemistry) 진단 이란?

임상화학 진단이란 인체의 혈액, 혈장, 혈청, 요, 뇌척수액 및 기타 체액 중에 존재하는 대사물질을 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질환을 진단하는 분야를 말하며, 검사를 통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질환의 경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과를 제공하는 검사 의학의 한 분야이다. 글로벌 동물용 임상화학 진단 시장은 2018년 기준 7억달러에서 2023년 기준 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출처 : MarketsAndMarkets) 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